

한국인 L2 학습자의 영어 재귀대명사 습득과 매개변항-재설정 전략 연구*

조우영

(전북대학교)

Cho, Wooyoung. (2022). Korean L2 learners' acquisition process of English reflexives and parameter-resetting strategy.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30(2), 1-22.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process of Korean learners' acquisition of English reflexives and parameter-resetting strategy. This study was designed and conducted to examine how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acquire syntactic properties of English reflexives, and whether their acquisition process is constrained by Universal Grammar (UG). The experiment consists of 3 groups of Korean middle school students, from the 1st to the 3rd grade. A total of 120 students consisting of 40 students in each grade participa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Korean students in the lower grade transfer their L1 parameter values to interpret English reflexives, while students in higher grades can reset the parameters of Korean reflexives to the English valu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all Korean students are still constrained by UG even when there is L1 transfer and the subset principle is inaccessible.

주제어(Key Words): 재귀대명사(reflexives), 보편문법(Universal Grammar), 매개변항 값(parameter values), 모국어 전이(L1 transfer), 부분집합 원리(subset principle)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B5A17052007)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본 논문은 한국인 L2 학습자들의 영어 재귀대명사 습득과 그들의 습득 과정에서 보편 문법(Universal Grammar)에 의한 제약과 매개변향-재설정 전략을 연구·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보편문법은 모든 언어들이 공유하는 원리와 매개변향(Principles & Parameters)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모국어 습득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매개변향이 제 2 언어 습득에 여전히 적용되는가에 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결속영역 매개변향 측면에서 L2 학습자들의 영어 재귀대명사 습득이 많이 연구되어져 왔다(Finer & Broselow, 1986, 1991; Finer, 1991; Thomas, 1991; Cho, S.-K. 1992; Cho, J.-M., 2006; Choi & Lee, 2016). 이들의 연구 결과는 보편문법의 작용 여부와 그 보편문법에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견해를 달리 한다.

이와 더불어 보편문법의 틀 내에서 학습성(learnability)을 통제하는 부분집합 원리가 준수되는 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연구들은 L2 학습자가 재귀대명사의 결속영역에 대해 모국어보다 하위집합인 목표어의 매개변향 값을 잘 습득하는 것이 보편문법의 작용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재귀대명사의 결속대상에 대해서도 모국어보다 상위집합인 목표어의 매개변향 값을 잘 습득하는 지도 조사해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와 영어의 결속범위와 선행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국 L2 학습자가 영어 재귀대명사 습득에 있어서 매개변향을 재설정하는 지를 살펴볼 것이다.

특히, 만일 영어 재귀대명사 습득이 부분집합 원리에 의해 유도되는 경우라면, 어떤 종류의 원리와 매개변향이며 어떤 영역과 대상에 적용되는 지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또한, 학습자의 능숙도와 학습 수준에 따라 L1 전이가 얼마나 발생하는 지, 그리고 학습자의 초기 상태(State 0)와 최종상태(State terminal)가 어떠한 지를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각 문형별로 정답률을 살펴 보고,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느끼는 유형과 그 오류의 원인을 조사 분석할 것이다.

1.2. 영어 재귀대명사 습득연구

본 논문은 한국 L2 학습자의 영어 재귀대명사 결속에 대한 L2 구문 제약의 습득과 매개변향-재설정 전략을 조사하고, 학습자들이 이러한 습득 패턴을 보이는 이유를 조사·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영어 재귀대명사 습득에 대한 선행 연구는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L2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결속영역 매개변향 값을 설정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룬다. 이 연구들의 가정

은 영어 재귀대명사에 대한 지배범주 매개변항 값은 모국어 재귀대명사의 매개변항 값에 비해 하위집합이므로, L2 학습자가 매개변항 값을 설정하는 것은 보편문법의 작용에 의한 것이며 부분집합 원리를 준수하는 것이라는 것이다.¹⁾

또한, L2 학습자들이 영어 재귀대명사에 모국어 상위집합의 매개변항 값을 설정한다면, 이는 모국어 전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이들 연구의 결과는 제 2 언어 학습 초기에는 모국어 전이가 일어나지만, 학습 수준이 높아질수록 목표어 매개변항 값을 재설정하게 되며 부분집합 원리는 준수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다.

선행 연구들은 주로 영어 재귀대명사의 결속영역 매개변항 실험을 통해 제 2 언어 습득과 보편문법의 상호관련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동안 재귀대명사의 결속대상인 선행사 매개변항 값의 습득에 대해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L2 학습자들이 영어 재귀대명사 해석에 있어서 모국어의 하위집합 매개변항 값을 설정했을 경우에, 이것이 모국어 전이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부분집합 원리에 의한 것인지 의문스럽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귀대명사의 선행사 선택에 관계되는 한, 결속영역 매개변항 뿐만 아니라 결속대상 매개변항도 함께 분석해야 할 것이다.

2. 이론적 배경

2.1. 보편문법과 제 2언어 습득

아동은 언어를 습득할 때 불충분한 언어 입력자료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결국 모국어에 대한 추상적인 언어지식을 내재화할 수 있다. 이러한 언어지식과 제한된 언어 입력자료 사이의 불일치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언어 습득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된 것이 바로 인간의 정신 속에 내재하는 보편문법의 역할이다.

이 보편문법의 틀 안에서 선천적인 원리들을 적용하고 매개변항을 주어진 입력 자료에 설정함으로써, 모국어 습득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처럼 모국어 습득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하는 보편문법이 외국어 습득 과정에서도 작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 2언어 습득 분야에서 흥미로운 연구 대상이 되었다.

이에 따라서, 이전 연구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L2 습득에 있어서 보편문법의 역할에 대한 가설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Cook, 1988; Thomas, 1993).

1) Manzini & Wexler(1987)의 지배범주 매개변항에 따르면, 언어의 다양성은 각 언어가 결속영역에 대해 선택하는 매개변항에 달려있다. Subject(영어), INFL(이탈리아어), Tns(러시아어), Indicative Tns(아이슬란드어), 그리고 root Tns(한국어, 중국어, 터키어)가 결속범주 매개변항 값이 된다. 따라서, 영어 재귀대명사의 선행사 지배범주는 한국어와 비교하여 하위집합, 즉 부분집합에 해당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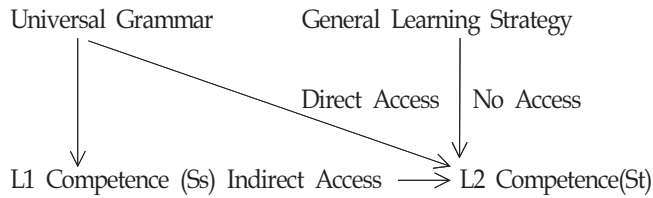


그림 1. Access to UG

첫째는 보편문법의 직접 접근(direct access to UG) 가설이다. L2 성인 학습자들이 아동의 모국어 습득과 똑같은 방식으로 보편문법에 접근한다는 것이다. Thomas(1993)는 일본어 원어민과 스페인어 원어민의 영어 재귀대명사 해석 연구에서 성인 학습자가 제한된 언어영역내에서 보편문법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는 보편문법의 간접 접근(indirect access to UG)이다. L2 학습자들이 보편문법에 접근하기는 하지만, 그 보편문법의 작용이 L1을 통해 중재된다는 것이다. Finer & Broselow (1986)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서 중간 값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셋째는 보편문법의 접근 불가(no access to UG) 가설이다. 아동의 언어 발달과 성인의 제 2언어 학습이 사실상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이다. Bley-Vroman, Felix & Ioup(1988)은 한국 원어민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인 학습자가 L2 능력을 개발하는 데 사용되는 보편문법에 대한 지식에 접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에 Schachter(1989)는 특정 L1 구문의 영역에서 L2 학습자들이 보편문법에 접근할 수 없다고 결론내리며 영어의 하위인접조건을 위반한 한국인 학습자에 대한 연구를 보고했다.

위의 세 가설 중 간접접근 가설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즉, 제 2언어 학습 초기에는 모국어 전이가 일어나지만, 학습 수준이 높아질수록 모국어 전이가 극복되고 L2 습득에 근접하게 된다는 것이다.

2.2. 결속원리 A

다음의 예는 영어에서 NP의 해석이 문법적 원리에 의해 제한되는 것을 보여준다.

- (1) a. Poirot_i hurt himself_i.
- b. *Poirot_i thinks that Miss Marple hurt himself_i.

(Haegeman, 1994)

(1a)에서 재귀대명사 *himself*는 주어 *Poirot*을 지시한다. 재귀대명사는 문장 내에 있는 선행사(antecedent)에 지시적으로 의존하고 있으며, 이를 재귀대명사가 선행사에 결속되어 있

다고 말한다.

Chomsky(1981, p. 188)가 제안한 원리와 매개변항(Principles and Parameters) 이론의 틀에서 결속원리 A에 대해 살펴 보면, 재귀대명사는 다음과 같은 제약과 조건을 가진다.

(2) 결속원리 A (Principle A)

An anaphor must be bound in its governing category.

영어의 재귀대명사는 대용어(anaphor)로써 문장 내에서 반드시 선행사를 가져야 한다. 그리고 재귀대명사와 선행사는 반드시 인칭, 성, 수에 일치해야 한다.

또한, 결속의 개념은 선행사와 재귀대명사가 동일절 내에 나타나야 한다는 결속영역 제약과 선행사가 재귀대명사를 성분통어해야 한다는 성분통어 제약으로 표현된다.

(3) a. Poirot_i invited himself_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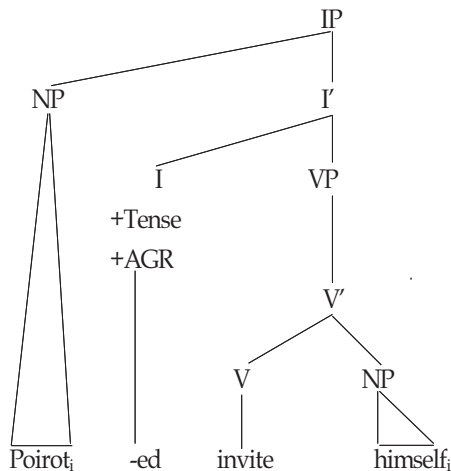
b. *Poirot_i's sister invited himself_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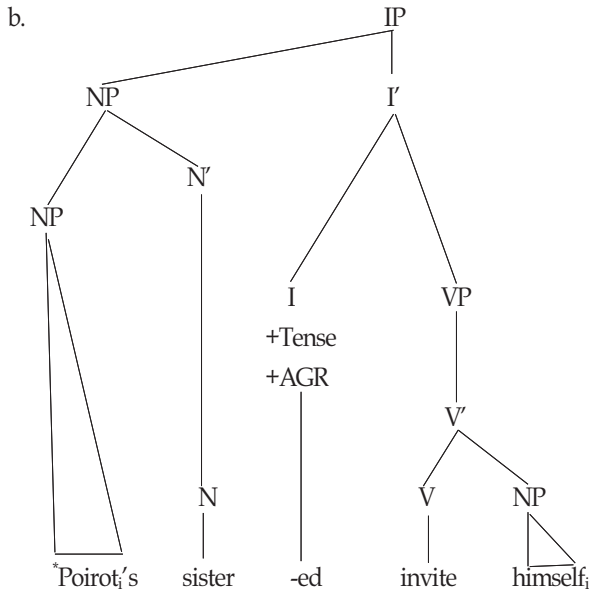
(Haegeman, 1994)

(3a)에서 재귀대명사 *himself*와 선행사 *Poirot*는 절의 동일한 국부 영역(local domain)에 있기 때문에 절 밖으로 국부적으로 결속된다. 그러나, (3b)에서는 재귀대명사 *himself*가 주어 NP의 지정어 위치에 있는 *Poirot*에 의해 결속될 수 없다. 이처럼, 재귀대명사는 절짝(clause-mate) 선행사, 즉 국부 선행사에 의해 결속되어야 하며, 선행사는 재귀대명사에 선행해야 한다.

다음의 수형도를 통해 살펴보자.

(4) a.





(4)에서 예시되듯이, (3a-b)에서 *Poirot*는 재귀대명사 *himself*를 선행하고 수형도에서 더 높은 NP이다. 하지만, (3a)에서 선행사 *Poirot*가 재귀대명사 *himself*와 결속하지만, (3b)에서는 *Poirot*와 *himself*가 결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선행사는 재귀대명사를 성분통어해야 한다.²⁾

2.3. 지배범주와 선행사 매개변항

결속영역에 대해 Wexler & Manzini (1987, p. 421)는 각각 한 유형의 언어를 나타내는 5개의 서로 다른 값을 가진 매개변항을 제안한다.

(5) 지배범주 매개변항(Governing Category Parameter)

γ is a governing category for α if γ is the minimal category that contains α and

- a. has a subject, or (English)
- b. has an INFL, or (Italian)
- c. has a TNS, or (Russian)
- d. has an indicative TNS, or (Icelandic)
- e. has a root TNS (Korean, Japanese)

2) 지배(Government)의 개념이 최소주의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결속영역의 매개변항 설정을 위한 장치로써 사용하기로 한다.

(5)에 의하면, 주어 값을 취하는 언어인 영어 (5a)는 INFL, 시제, 직설법 시제, 원형 시제 매개변항 값을 취하는 언어들 (5b-e)의 하위집합이 된다. 또한, 원형 시제 값을 갖는 언어인 한국어와 일본어 (5e)는 주어, INFL, 시제, 직설법 시제 값을 취하는 언어들 (5a-d)의 상위집합이 된다.

이를 부분집합 관계로 나타내면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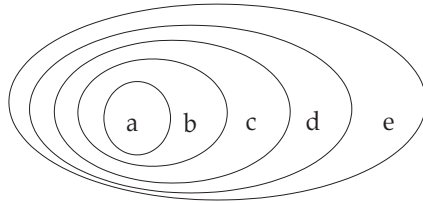


그림 2. 지배범주 매개변항의 부분집합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영어 재귀대명사 'himself'는 결속영역으로 (5a)의 값인 주어를 선택한다. 따라서, 결속영역은 최소명사구나 최소절이 된다. 그러나 한국어 재귀대명사 '자기'와 일본어 재귀대명사 'zibun'은 (5e)의 값인 원형 시제를 포함하므로 문장 전체가 결속 영역이 된다.

또한, 영어 재귀대명사는 결속원리 A에 의해 국부적으로 결속되지만, 한국어 재귀대명사는 국부적이거나 비국부적으로 결속된다.

- (6) a. $Mary_i$ thinks that $John_j$ blames himself _{i/j} .
- b. $Mary_i$ 는 $John_j$ 이 자기(자신) _{i/j} 를(을) 비난한다고 생각한다.

(6a)에서 *himself*의 선행사는 지배범주 내에 있는 명사구인 주어 *John*만이 될 수 있지만, (6b)에서는 *자기*의 선행사는 *Mary*나 *John* 둘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³⁾

결속대상에 대해서도 Wexler & Manzini(1987, p. 53)는 두 가지 매개변항 값이 존재한다고 제안했다.

3) 여기서 한국어의 '자기'와 '자신'은 국부적 결속뿐만 아니라 장거리 결속도 허용하지만, '자기자신'은 영어의 'x-self'와 같이 국부적 결속만을 허용한다. 이러한 사실은 Wexler & Manzini (1987, p. 55)의 어휘 매개변항화 가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i) Lexical Parameterization Hypothesis

Values of a parameter are associated not with particular language, but with particular lexical items in a language.

(i)에 의하면, 매개변항의 값은 언어에 따라 일괄적으로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한 언어에서도 특정 어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7) 적절한 선행사 매개변항(Proper Antecedent Parameter, PAP)

- A proper antecedent for a is
 a. a subject β ; or
 b. an(y) element β whatsoever

(7)에 의하면, 하나는 주어가 재귀대명사의 선행사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어떠한 명사구(any NP)’도 재귀대명사의 선행사가 될 수 있다. 즉, 전자는 더욱 제약된 값이며 후자는 덜 제약된 값이라는 것이다.

이를 부분집합 관계로 나타내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적절한 선행사 매개변항의 부분집합

그림 3에 의하면, 영어의 재귀대명사는 주어 외에 목적어에 의해서도 결속될 수 있으므로 (7a)의 값을 가지는 반면, 한국어의 재귀대명사는 주어 선행사에 의해서만 결속되므로 (7b)의 값을 가진다. 다시 말해서, 결속대상에 대해서 주어 선행사를 취하는 한국어는 주어 외에 목적어도 선행사로 가지는 영어의 하위집합이 되고 영어는 한국어의 상위집합이 된다.

2.4. 한국어와 영어에서의 지배범주 매개변항

Cole & Sung(1994)과 Provac(1993)에 의하면, 한국어 재귀대명사는 주어 선행사를 지향하는 반면에, 영어 재귀대명사는 주어 외에 비주어도 선행사가 될 수 있다.

- (8) a. $Mary_i$ 는 Sue_j 가 자기 $_i/j/$ * $_k$ 를 위하여 그린 $Jane_k$ 의 그림을 보았다.
 b. $John_i$ told $Peter_j$ a story about himself $_i/j$.

(8a)에서 $Mary$ 나 Sue 가 주어이므로 자기의 선행사될 수 있지만, $Jane$ 은 주어가 아니므로 자기의 선행사가 될 수 없다. 반면 (8b)에서는 주어 $John$ 과 목적어 $Peter$ 둘 다 $himself$ 의 선행사가 될 수 있다.

Cole & Sung(1994, p. 357)에 따르면, 한국어 단일어 형태의 재귀대명사 ‘자기’와 ‘자신’은

장거리 결속하며 주어지향을 보이지만, 복합어 형태의 재귀대명사 ‘자기 자신’과 ‘x-자신’은 국부적으로 결속하며 주어 또는 목적어 지향을 나타낸다.

- (9) a. Jane_i은 Susan_j에게 그녀 자신_{i/j}에 관하여 말했다.
 b. Jane_i asked Susan_j about herself_{i/j}.

(9a)와 (9b)는 한국어와 영어 재귀대명사가 주어 또는 목적어와 결속하는 경우를 보여 준다. 한국어 재귀대명사는, 영어의 경우와는 달리, ‘x-자신’과 ‘자기 자신’과 같은 복합 형태의 재귀대명사는 영어의 재귀대명사처럼 원리 A를 준수하여 국부적으로 결속한다. 반면에, 단일 형태의 재귀대명사 ‘자기’와 ‘자신’은 그들이 속한 절의 경계를 넘어서 주절의 주어와 결합하는 장거리 결속을 한다.

2.5. 부분집합 원리와 학습성

Berwick(1985)과 Wexler & Manzini(1987)의 부분집합 원리는 보편문법의 원리는 아니며 긍정적 증거(positive evidence)만을 가진 모국어 습득을 설명하기 위해 제안된 하나의 학습 원리이다. 언어 경험이 긍정적 데이터로 구성된다는 가정 하에 Wexler & Manzini (1987, p. 61)는 부분집합의 원리를 다음과 같이 공식화한다.

(10) 부분집합 원리(Subset Principle)

The learning function maps the input into data to that value of a parameter that generates a language

- a. compatible with the input data; and
 b. smallest among the language compatible with the input data.

부분집합 원리를 지배범주 매개변항을 예로 들어 설명하자면, 가장 큰 매개변항을 가진 한국어 L1 화자가 가장 작은 매개변항을 선택하면, 긍정적 증거에 의해 큰 매개변항으로의 재설정이 일어나게 된다. 그러나 영어 L1 화자가 영어보다 더 큰 매개변항을 선택하면, 긍정적 증거만으로는 다시 작은 매개변항으로의 재설정이 불가능하다.

즉, 부정적 입력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어린이가 과일반화된 문법을 생성하는 매개변항 값을 먼저 선택하면, 나중에 이를 수정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학습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는 모국어 습득시 가장 최소 범위의 문법을 먼저 선택한다는 것이 부분집합 원리이다.

Zoble(1989)과 White(1989)는 L2 습득에 대한 하위집합 매개변항에 대한 연구에서 목표 언어가 부분집합 값을 요구하는 반면, 모국어가 상위집합 값을 갖는 L2 학습자에 대해 부분집합 원리가 작동하는지 여부에 중점을 두었다.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부분집합 원리가 L2 습득에

서 작용하는 경우, L2 학습자는 무표적인 하위집합 값으로 시작하므로 목표 언어의 올바른 값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반대로, 부분집합 원리가 L2 습득에서 작용하지 않는 경우, L2 학습자는 상위집합 값을 전이하고 목표 언어의 올바른 값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Zoble(1988)과 Hirakawa(1990)는 또한 성인 제 2 외국어 학습자들이 부분집합 원리를 이용할 수 없다는데 동의한다. 하지만, 특정 매개변항의 재설정에는 해당 매개변항이 오류 수정을 위해 부정적인 증거만 필요하더라도 가능하다. 그러나 부분집합 원리가 제 2 언어 습득에서 이용가능하지 않으면, 학습자는 부정적 증거의 영향없이 특정 매개변항의 올바른 값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제 영어와 한국어의 예를 통해, L1 화자들이 부분집합 원리에 따른 학습전략을 어떻게 준수하는지를 살펴 보자.

(11) a. John_i thinks that it made Peter_j sad that Bill_k hates himself_{i/j/k}.

b. John_i은 Bill_k이 자기_{i/j/k}를 미워하는 것이 Peter_j를 슬프게 했다고 믿는다.

부분집합 원리에 의하면, (11a)에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아동은 처음에는 재귀대명사의 결속영역으로 가장 최소의 절을 선택한다. 따라서, *himself*의 선행사로 *Bill*을 선택하며 국부 결속(local binding)되는 것으로 시작한다. 또한, 영어 L1 화자들은 재귀대명사가 비국부 결속(non-local binding)되는 긍정적 증거가 없으므로, 재귀대명사의 선행사 고정 값은 여기에 설정된다.

반면에, (11b)에서는 한국어 L1 화자들이, 영어 L1과 마찬가지로, 가장 최소의 절을 재귀대명사의 결속영역으로 선택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따라서, *자기*의 선행사로 *Bill*을 선택하며 국부 결속되는 것으로 가정한다. 여기에서 한국어 L1 화자들은 *자기*의 선행사로 *Bill* 뿐만 아니라, *John*이나 *Peter*도 언급되는 긍정적 입력자료를 듣게 된다. 즉, 국부 결속에서 전체절을 결속영역으로 하는 더 큰 범위의 매개변항 값 설정으로 이동하게 된다.

Lee & Wexler(1987)는 한국 아동들과 성인들의 재귀대명사 습득을 조사한 결과, 아동들이 대부분 국부 선행사를 선호하는 반면, 성인들은 장거리 선행사를 선호한다고 보고했다. 이러한 결과는 모국어 습득에 있어 부분집합 원리가 준수된다는 사실을 뒷받침해 준다.

3. 선행 연구

3.1. Finer & Broselow(1991)

Finer & Broselow(1991)는 한국 성인의 영어 재귀대명사 L2 습득에 대한 파일럿 연구를 보고한다. 즉, 학습자가 L2에서 L1 값을 유지하는지 또는 L2가 지배범주 매개변항(GCP)의

다른 값을 가질 때 L2 값을 사용하는지 여부를 조사했다.

테스트 문장은 다음과 같다.

(12) a. Mr. Fat thinks that Mr. Thin will paint himself.

b. Mr. Fat wants Mr. Thin to paint himself.

(12)에서 한국 학습자들은 한정절을 가진 (12a)의 문장에 대해서 국부 선행사를 선택한 응답이 92%였고, 비한정절을 가진 (12b)의 문장에서는 국부 선행사를 58%, 비국부 선행사를 38% 선택했다. Finer & Broselows는 이 결과를 한국 학습자들이 영어 재귀대명사의 지배범주를 결정할 때 영어나 한국어의 지배범주 매개변항을 사용하지 않고, 두 언어와 상관 없는 러시아어의 지배범주 매개변항과 같은 다른 언어의 값을 사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러한 결과는 L2 학습자가 지배범주 매개변항의 중간 값을 선택했음을 보여준다. 이는 한국 영어 학습자들이 부분집합 원리나 모국어 전이에 의해서만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3.2. Thomas(1989/1991)

Thomas(1989)는 스페인어와 중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영어 학습자들이 L2로 영어 재귀대명사를 습득하는 것을 조사했다. 스페인어는 영어처럼 국부 선행사를 선호하므로, 스페인 영어 학습자는 국부 선행사를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중국어는 한국어와 일본어와 같이 비국부 선행사와 결속하므로, 중국인 영어 학습자는 국부 선행사 또는 비국부 선행사를 선택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실험 결과는 다음의 표 1과 같다.

표 1. Thomas(1989)의 실험 결과 (%)

그룹/유형	통제그룹	스페인 학습자	중국 학습자
국부	99.3	59.5	69.1
비국부	0.64	18.9	7.29
둘 중 하나	0.18	21.1	23.5

표 1에서 보듯이, 스페인 학습자의 경우, 국부 선행사 선택이 59.5%에 그치고 비국부 선행사를 18.9%나 선택했다. 반면에, 중국인 영어 학습자의 경우 국부 선행사를 69.1%나 선택했다. Wexler & Manzini(1987)가 제안한 지배범주 매개변항에 의하면, 국부 선행사 선택이 하위집합의 변수이므로 국부 선행사를 선택하는 응답률이 높아야 한다. 하지만, 위의 결과는 비국부 선행사에 대해서도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나타낸다.

Thomas(1991)의 또 다른 실험 연구에서는 성인 학습자들이 제 2언어를 배울 때 보편문법 원리나 매개변항에 접근하는지를 알아 보기 위해, 영어를 배우는 일본과 스페인 학습자들의 영어 재귀대명사에 대한 지식을 조사했다. 스페인어는 영어와 마찬가지로 국부 선행사와 결속하지만, 일본어는 한국어나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비국부 선행사와 결속한다. 실험연구 결과, 대부분의 학습자들은 국부 선행사를 선택했으며, 소수의 학습자들만이 국부 또는 비국부 선행사를 허용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Thomas는 부분집합 원리가 제 2언어 습득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다.

3.3. Hirakawa(1990)

Hirakawa(1990)는 일본 L2 학습자가 영어 재귀대명사의 결속 특성을 습득하는 방법과 일본 학습자가 L1과 L2가 다른 지배범주 매개변항의 값을 설정하는 방법을 다음 5가지 유형의 문장에 대한 문법성 판단 실험으로 조사했다.

(13) Type A: Two-clause sentence (finite)

John said that Bill hit himself.

Type B: Three-clause sentence (finite)

Mary remembers that June said that Alice blamed herself.

Type C: Two-clause sentence (nonfinite)

Mary asked Ann to introduce herself.

Type D: Three-clause sentence (nonfinite)

Ann knows that Mary told June not to hate herself.

Type E: One-clause sentence

Bob talked to Paul about himself.

실험 결과에 따르면, 지배범주 매개변항에 대해 일본 학습자들이 영어 재귀대명사의 한정절에서 비국부 선행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irakawa(1990)는 이 결과를 모국어 전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부분집합 원리가 영어의 습득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비록 학습자들이 대체로 지배범주 매개변항을 재설정하지 못했지만, 10명의 학습자들이 100%의 정답율을 보였다. 이들은 매개변항 값을 하위집합인 영어의 매개변항 값에 성공적으로 재설정함으로써, 단문에서 영어 재귀대명사를 주어 또는 비주어 선행사들 모두와 결속시킬 수 있다. 따라서, Hirakawa는 적어도 일부 학습자들에게는 보편문법의 매개변항이 재설정된다고 주장했다.

이 결과는 UG가 L2 습득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Schachter(1988a,b) 및 Bley-Vroman(1989)이 제안한 가설과 일치하지 않으며, L2에서 매개변항-재설정이 가능함을 시사해 준다.

3.4. Cho Se-Kyung(1992)

조세경(1992)은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재학중인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문법성 판단, 선호도, 독해 및 문장-그림 매칭 테스트의 4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영어 재귀대명사의 결속영역 제약 및 부분집합 원리의 학습 전략에 관한 실험연구를 실시했다.

- (14) a. Mary said that Sue pinched herself. (2-clause finite sentence)
- b. John asked Fred to paint himself. (2-clause nonfinite sentence)
- c. Jean said that Mary remembered that the waitress deceived herself. (3-clause finite sentence)
- d. Tom remembers that Mike asked AI to dress himself. (3-clause nonfinite sentence)

위 (14) 문형에 대한 문법성 판단 테스트의 결과(정답률)는 표 2에서와 같다.

표 2. 조세경(1992)의 실험 결과 (%)

유형/그룹	G11	G12	Jr.& Sr.	Grad.	Korean control	English control
2절 한정절						
국부	63.91	68.4	70.0	94.4	30.0	96.7
비국부	36.1	28.9	17.5	5.6	60.0	3.3
2절 비한정절						
국부	41.7	50.0	50.0	80.5	23.3	93.4
비국부	55.6	38.9	45.0	13.9	66.7	3.3
3절 한정절						
국부	36.1	57.9	65.0	94.4	10.0	93.4
비국부1	33.3	15.8	17.5	2.8	53.3	3.3
비국부2	19.5	15.8	10.0	2.8	16.7	0
3절 비한정절						
국부	33.3	42.1	47.5	77.8	13.3	96.7
비국부1	30.6	34.2	27.5	13.9	56.7	0
비국부2	27.7	18.4	12.5	8.9	16.7	3.3

위의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은 한정절에서 국부 선행사를 선호하는 반면, 비한정절에서는 비국부 선행사를 선택했다. 즉, 한국인 학습자들은 한정절과 비한정절 사이에서 영어 재귀대명사를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어는 재귀대명사

와 관련하여 한정절과 비한정절에서 대응적 관계를 구별하지 않는다.

결과는 한국인 L2 학습자가 영어 재귀대명사에 대해서 무표적(unmarked) 국부 선행사를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부분집합 원리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3.5. Choi & Lee(2016)

최정아와 이예식(2016)은 영어를 제 2 언어로 학습하는 중학교 3학년과 대학교 1~4학년을 대상으로 문법성 판단 및 이야기에 기반한 진리치 테스트를 사용하여 영어 재귀대명사의 선행사 결정 능력 및 지배범주와 관련하여 부분집합 원리의 준수 여부를 연구했다.

실험 문형은 5가지 문장 유형으로 하나의 절로 이루어진 문장 2개, 내포절에 시제를 가진 두 개의 절로 이루어진 문장 3개, 내포절에 시제가 없는 두 개의 절로 이루어진 문장 3개, 그리고 부가절을 포함하는 두 개의 절로 이루어진 문장 2개로 구성된다.

문법성 판단 실험에서 실험 집단 간 오답률을 비교하자면 표 3에서와 같다.

표 3. Choi & Lee(2016)의 실험 결과 (%)

문형	보기	오답 응답자 평균 비율(%)			
		중학생		대학생	
		중학생 오답률	평균(%)	대학생 오답률	평균(%)
1	비국부적 선행사	16.5	12.6	9.8	6.2
	국부적이거나 비국부적 선행사	8.7		2.6	
2	비국부적 선행사	27.2	18.95	39.9	26.5
	국부적이거나 비국부적 선행사	10.7		13.1	
3	비국부적 선행사	15.5	24.2	13.7	9.15
	국부적이거나 비국부적 선행사	8.7		4.6	
4	비국부적 선행사	16.5	13.6	14.4	9.5
	국부적이거나 비국부적 선행사	10.7		4.6	
5	비국부적 선행사	15.5	18.45	21.6	17.65
	국부적이거나 비국부적 선행사	21.4		13.7	
6	비국부적 선행사	32	21.85	24.8	17.3
	국부적이거나 비국부적 선행사	11.7		9.8	
7	비국부적 선행사	42.7	30.1	40.5	23.2
	국부적이거나 비국부적 선행사	17.5		5.9	
8	비국부적 선행사	15.5	15.05	19	14.1
	국부적이거나 비국부적 선행사	14.6		9.2	
9	비국부적 선행사	9.7	9.2	3.6	4.75
	국부적이거나 비국부적 선행사	8.7		5.9	
10	비국부적 선행사	5.8	10.65	14.4	8.85
	국부적이거나 비국부적 선행사	15.5		3.3	

위의 표 3에서 보듯이, 중학생 집단은 대학생 집단에 비해 문항별 ‘비국부적 선행사’ 및 ‘국부적이거나 비국부적 선행사’ 보기를 선택하며 높은 오답률을 나타냈다. 즉, 대학생들은 목표어 문법에 가까운 ‘국부적 선행사’를 선택하였지만, 중학생들은 ‘국부적 선행사’나 ‘국부적 또는 비국부적 선행사’를 취하는 경향을 보였다. 두 집단 간 결과의 차이는 중학생들이 대학생들보다 목표어 재귀대명사의 선행사 결정에서 모국어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반면, 대학생들은 상대적으로 목표어 문법에 가까운 재귀대명사의 선행사 결정 능력을 가지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 집단과 대학생 집단 간의 비교를 통해, 한국 학습자들이 지배범주의 매개변항 값을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으로 재설정하면서 영어의 재귀대명사를 습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4. 연구 방법 및 절차

본 실험연구에서는 모국어와 목표어가 다른 지배범주 매개변항 값 설정에 대한 한국 중학생들의 언어학적 지식을 검토하기 위해,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개 그룹으로 연구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한국 학생들이 영어에 노출되면서 학습 과정을 진행하고 향상시킨다고 가정한다. 따라서, 이 실험연구는 결국 제 2 언어 습득을 완료하는 과정에 상당히 영향을 받는다.

4.1. 연구 가설

L2 학습자들의 재귀대명사에 관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Wexler & Manzini(1987)의 매개변항-설정 모형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졌다. 그리고 보편문법의 이용가능성, 부분집합 원리의 준수 및 모국어 전이의 영향을 주로 다루었다. 이들 연구의 결과는 대부분 L2 학습에 보편문법이 작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보편문법에 접근하는 방법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접근하는지 모국어 전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접근하는 지에 관해서는 확실한 결론이 없는 상태이다.

선행 연구를 토대로 한국인 L2 학습자의 영어 재귀대명사 습득에 관한 연구가설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 가설 1. 부분집합 원리는 L1 습득에서와 동일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한국 L2 학습자들은 영어 재귀대명사를 처음에 무표적 매개변항 값을 선택하고, 긍정적 증거의 영향으로 목표어의 매개변항 값으로 전환할 수 있다.

- 가설 2. 부분집합 원리는 작용하지 않고, 한국인 학습자는 지배범주 매개변향을 L1 값에서 목표어 값으로 재설정한다. 따라서, 한국어와 영어가 매개변향 값이 다르지만, 한국인 L2 학습자는 결속영역과 관련하여 국부 선행사와 결속하고 결속대상과 관련해서는 주어나 목적어 선행사를 선택할 것이다.
- 가설 3. 부분집합 원리는 작용하지 않고, L1 전이도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한국 L2 학습자는 모국어와 목표어 사이의 중간 값을 선택할 것이다.

4.2. 연구대상 및 목적

본 실험연구는 한국 중학생들이 어떻게 영어 재귀대명사에 한국어 재귀대명사의 매개변향 값을 재설정하는가를 살펴 보기 위해 설계되고 수행된다.

연구대상은 영어 수준별 이동수업이 이루어지는 전라북도 H중학교 1학년 40명, 2학년 40명 그리고 3학년 40명, 총 120명의 학생들로 구성된다. 연구가 수행된 중학교에서 수준별 이동수업의 반 편성은 한 학기 지필고사(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평균 점수)의 학업 성취도에 따라 상·중·하로 나누게 된다. 연구대상이 된 상위집단 학생들 중에서 외국에서 생활하여 다른 학생보다 더 일찍 영어 학습에 노출된 학생들은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4.3. 자료 및 절차

한국인 L2 학습자의 지배범주 매개변향 값 설정에 대한 지식을 조사하고 결과를 비교하기 위해, 선행연구와 유사한 테스트 문장을 사용했다. 다음과 같이 4가지 유형의 문장을 선택하여 그룹화했으며, 어휘 등 다른 요인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 각 문장에 동일한 성별의 명사구를 제시했다.

- (15) a. John thinks that Peter hated himself.
 b. Mary knows that Jane thinks that Suzy hit herself.
 c. Mary wants Jane to understand herself.
 d. John says that Peter told Bill to introduce himself.

학생들에게 객관식 시험 설문지를 주고 단어의 기본 의미를 설명하고, 각 문장에서 올바른 선행사를 선택하도록 요청했다. 이러한 실험 연구를 통해, 영어와 한국어의 문법적 특징과 한국인 L2 학습자의 언어지식 습득과정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것을 토대로, 한국인 L2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 결과가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4.4. 결과 및 논의

영어를 제 2언어로 배우는 한국 학생들이 영어 재귀대명사에 대한 결속 관계에 대해 비교적 명확한 이해를 보여주었다. 학생들은 다음에서와 같이 (15a)의 2절 한정절과 (15c)의 2절 비한정절에서 재귀대명사의 선행사로 국부 선행사를 올바르게 선택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표 4. 2절에서 재귀대명사의 선행사 선택에 대한 정답율 (%)

유형/그룹	1학년	2학년	3학년
(15a)	85	95	100
(15c)	75	85	100

$$X^2=0.088 \quad p=0.957 \quad df=2$$

위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한국 학생들은 1학년, 2학년 및 3학년 모두 (15a)에서 높은 정답율을 보여주었다. 특히, 3학년 학생들은 영어 재귀대명사를 완전히 이해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5a)의 결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저조한 (15c)의 결과는 한정성(finiteness)의 영향을 나타내준다.

그러나, (15b)의 3절 한정절과 (15d)의 3절 비한정절에서는 학생들이, 다음에서 볼 수 있듯이, 영어 재귀대명사의 선행사로 비국부적인 명사를 잘못 선택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표 5. 3절에서 재귀대명사의 선행사 선택에 대한 정답율 (%)

유형/그룹	1학년	2학년	3학년
(15b)	65	70	85
(15d)	60	90	95

$$X^2=0.383 \quad p=0.826 \quad df=2$$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은 3절에 대한 정답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표 5의 수치 자료를 해석해 볼 때, (15b)와 (15d)의 결과는 한정성의 영향을 보여준다. 2절 문장에서 비한정절 정답률이 한정절 정답률보다 더 낮다. 이는 Finer & Broselow(1991) 등의 결과와 같은 것으로 한국인 학습자가 한정절에서 오히려 비국부적 결속을 더 많이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3절 문장에서는 비한정절 정답률이 한정절 정답률보다 높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한국인 학습자가 한정절에서 오히려 비국부적 결속을 더 많이 허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는 한정성 뿐만 아니라 문장의 복잡성이 동시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 문장의 복잡성이 한정성보다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6. 한정절에서 재귀대명사의 선행사 선택에 대한 정답율 (%)

유형/그룹	1학년	2학년	3학년
(15a)	85	95	100
(15b)	65	70	85

$$X^2=0.096 \quad p=0.593 \quad df=2$$

위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학생들은 (15a)의 2절 한정절에서 높은 정답율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15a)에서 재귀대명사 *himself*의 선행사로 국부 주어 *Peter*를 선택했다. 그러나 (15b)의 3절 한정절에서는 학생들이 재귀대명사 *herself*의 선행사로 비국부 NP *Mary*를 잘못 선택했다. 이는 3절 문형에서 영어 재귀대명사에 대한 이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나타내준다.

표 7. 비한정절에서 관계사절의 정답율 (%)

유형/그룹	1학년	2학년	3학년
(15c)	75	85	100
(15d)	60	90	95

$$X^2=0.299 \quad p=0.861 \quad df=2$$

흥미롭게도, (15c)의 2절 비한정절에서 학생들은 비국부 선행사 *Mary*를 가장 많이 선택하고, (15d)의 3절 비한정절에서는 가장 왼쪽에 있는 비국부 선행사 *John*을 선택했다. 이는 한국어 문법에서 장거리 결속이 허용되므로, 한국 학생들이 모두 비국부 선행사를 선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 2 언어로서 영어를 배우는 한국 학생들은 문장의 한정성 뿐만 아니라 복잡성(complexity)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실험연구는 중학교 1학년, 2학년 및 3학년을 대상으로 하였다. 다음 표 8에서 (15b)의 3절 한정절에 대해 1학년과 3학년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8. 3절 한정절에서 1학년과 3학년의 결과 (%)

유형/그룹	정답율	오답율
1학년	75	25
3학년	85	0

$$X^2=5.714 \quad p=0.017 \quad df=1$$

또한, (15d)의 3절 비한정절에 대해서도, 다음 표 9에서와 같이, 1학년과 3학년 사이에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9. 3절 비한정절에서 1학년과 3학년의 결과 (%)

유형/그룹	정답율	오답률
1학년	60	40
3학년	95	5

$\chi^2=7.025$ $p=0.008$ $df=1$

특히, 표 9의 결과는 유의 수준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표 8~9에서 볼 수 있듯이, 학생들은 영어 재귀대명사의 해석에 대해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다시 말해서, 학생들은 학년이 높아질수록, 즉 영어 학습에 노출된 시간이 많을수록, 영어 재귀대명사에 대한 결속 관계를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험연구의 결과, 1학년 학생들은 모국어 전이(L1 값에서 전이)의 조짐을 보였지만, 2학년과 3학년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내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특히, 3학년 학생들은 영어 재귀대명사에 대한 정답률이 높기 때문에, 모국어 전이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한국 학생들은 초기 단계에서 지배범주 매개변항을 L2 값으로 재설정하는데 실패하고, 이후 단계에서 매개변항-재설정을 달성한다. L2로서 영어를 배우는 한국인들은 문장의 한정성 뿐만 아니라 복잡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생들이 학습을 진행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영어 재귀대명사의 결속 유형에 가까워지며, 3학년 학생들은 매개변항을 영어의 값으로 재설정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요약하자면,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은 영어 재귀대명사에 대해 올바른 선행사를 선택하지 못하고, 영어 재귀대명사를 비국부 선행사와 결속하는 오류를 보였다. 그러므로 부분집합 원리는 L1 습득에서와 동일하게 작용하며, 한국인 L2 학습자들은 영어 재귀대명사를 처음부터 올바르게 해석할 것이라는 가설 1은 기각되었다.

또한, 1학년 학생들은 지배범주 매개변항에서 올바른 영어 값을 선택하지 못하고, 한국어의 문법에서처럼 비국부 선행사와 결속하지만, 2, 3학년 학생들은 영어 재귀대명사를 국부 선행사와 올바르게 결속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므로 한국인 학습자는 지배범주 매개변항을 L1 값에서 목표어 값으로 재설정하며, 한국어와 영어의 매개변항 값이 다르더라도 한국인 L2 학습자가 궁극적으로 지배범주 내 명사구에 재귀대명사를 결속할 것이라는 가설 2는 긍정적으로 입증되었다.

특히, 재귀대명사는 한국어 문법에서 비국부 선행사, 그리고 영어 문법에서는 국부 선행사와 결속하는데, 한국 중학생들은 영어 재귀대명사를 3절 비한정절의 경우에는 중간 비국부 선행사 또는 가장 왼쪽 비국부 선행사와 결속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므로 부분집합 원리는 작용하지 않고 L1 전이도 발생하지 않으며, 한국인 L2 학습자는 모국어와 목표어 사이의 중간 값을 선택할 것이라는 가설 3은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실험연구는 한국 중학생들의 영어 재귀대명사 습득과 그들의 습득 과정에서 매개변항-재설정 전략을 조사했다. 연구의 결과는 저학년 중학생들이 모국어 전이의 영향으로 영어 재귀대명사에 대해 선행사를 잘못 선택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중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목표어의 지배범주 매개변항에 그들이 모국어 매개변항 값을 전이시키기 때문이다.

즉, 영어 재귀대명사를 해석하기 위해, 저학년 학생들은 영어 재귀대명사와 한국어 재귀대명사의 다른 매개변항 값 때문에 한국어 재귀대명사의 매개변항 값을 사용하는 반면, 고학년 학생들은 영어 재귀대명사의 매개변항 값에 한국어 재귀대명사의 매개변항 값을 재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냈다.

요컨대, 영어 재귀대명사와 한국어 재귀대명사와 관련된 선행사 매개변항이 다르기 때문에, 제 2언어 습득의 초기 단계에 있는 중학교 1학년생들은 영어 재귀대명사를 해석하기 위해 한국어 매개변항 값을 사용했다. 하지만, 학생들이 영어에 대한 언어학적 지식과 영어 사용 경험에 노출되어 감에 따라 2학년 및 3학년 학생들은 목표 언어가 가지는 매개변항 값을 학습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재귀대명사 습득과 사용에 대한 실험 연구를 통해, 영어와 한국어의 문법적 특징과 한국인 L2 학습자의 영어 재귀대명사에 대한 언어지식의 습득과 발달과정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을 토대로, 학습자들에게 더 나은 학습 방향을 제시해 주고, 교사자들에게는 영어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교수방법을 찾는데 있어서 기초적인 밑바탕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시 말해서, 조사된 한국 중학생들의 영어 재귀대명사 결속에 대한 L2 구문 제약의 습득과 매개변항-재설정 전략에 대한 실험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중학생들의 효과적인 영어 재귀대명사 습득을 위해 교육 현장에 필요한 몇가지 제언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교실에서 배우는 영어는 문법 위주이거나 단순히 단어 대응식 암기위주로 학습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제로 영어 재귀대명사에 대한 교육은 ‘자기(자신)’ 또는 ‘x-자신’으로 해석하거나, 전치사와 함께 숙어로 암기하게 하는 정도의 학습수준에 머물러 있다.

구체적인 학습방안으로 학습자가 영어 재귀대명사의 기본적인 특성 및 한국어 재귀대명사와의 차이를 알도록 해야 한다; 첫째, 영어 재귀대명사는 성과 수를 가지며 반드시 선행사와 일치해야 한다. 둘째, 결속영역과 관련해서 영어 재귀대명사는 지배범주 내에서 그 선행사와 결속되어야 한다(결속원리 A). 셋째, 결속대상과 관련해서는 한국어 재귀대명사의 경우 단문에서 주어와 선행사이지만, 영어 재귀대명사는 주어 외에 비주어도 선행사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영어 재귀대명사를 지도할 때 이와 같은 점들을 고려한다면, 교육 현장에서 훨씬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영어 재귀대명사 습득에서 보편문법과 매개변항이 작용하려면 목표어에 노출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입력강화로 문법적 지식을 발달시키면서 보편문법의 틀 안에서 다양한 교수 방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최정아, 이예식. (2016).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재귀대명사 습득: 부분집합 원리 위반을 중심으로. *언어학*, 24(4), 395-411.
- Bley-Vroman, R. (1989). What is the logical problem of foreign language learning? In S. M. Gass & J. Schachter (Eds.), *Linguistic perspectiv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pp. 41-6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erwick, R. (1985). *The acquisition of syntactic knowledge*. Cambridge, MA: MIT Press.
- Cho, J.-M. (2006). The effect of UG in the L2 acquisition of Long-Distance Binding. *Studies in Generative Grammar*, 16(2), 193-209.
- Cho, S.-K. (1992). *Universal grammar and the subset principle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he acquisition of the governing category parameter by adult Korean learners of English*.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Chomsky, N. (1981b). *Lectures on government binding*. Dordrecht: Foris.
- Cole, P., Hermon, G., & Sung, L. M. (1994). Head movement and long-distance reflexives. *Linguistic Inquiry*, 25(3), 355-406.
- Cook, V. J. (1988). *Chomsky's Universal Grammar: An introduction*. Oxford: Basil Blackwell.
- Finer, D., & Broselow, E. (1986). Second language acquisition of reflexive binding. *Proceedings of NELS 16*, 154-168.
- Finer, D. L. (1991). Binding parameter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In L. Eubank (Ed.), *Point/counterpoint: Universal grammar in the second language* (pp. 351-374). Amsterdam: John Benjamins.
- Haegeman, L. (1984). *Government and Binding Theory*. Oxford: Blackwell.
- Hirakawa, M. (1990). A study of the L2 acquisition of English reflexives. *Second Language Research*, 6, 60-85.
- Kim, S. Y. (2000). Acceptability and preference in the interpretation of anaphors. *Linguistics*, 38, 315-353.
- Provac, L. (1993). Long-distance reflexives; Movement-to-Infl versus Relativized

- SUBJECT. *Linguistic Inquiry*, 24, 755-772.
- Schachter, J. (1988).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its relationship to Universal Grammar. *Applied Linguistics*, 9(3), 219-235.
- Thomas, M. (1989). The interpretation of English reflexive pronouns by non-native speakers.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1, 281-303.
- Thomas, M. (1991). Universal Grammar and the interpretation of reflexives in a second language. *Language*, 67, 211-239.
- Thomas, M. (1993). *Knowledge of reflexives in a second language*. Amsterdam: John Benjamins.
- Wexler, K., & Manzini, R. (1987). Parameters and learnability in binding theory. In T. Roeper & E. Willians (Eds.), *Parameter setting* (pp. 41-76). Dordrecht: Reidel.
- White, L. (1990). Second language acquisition and Universal Grammar.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12, 121-133.
- Yoo, K.-Y., & Kim, S.-Y. (2013). Pragmatic effects on Korean speakers' interpretations of English reflexives. *Korean Journal of Linguistics*, 38(3), 687-707.
- Zoble, H. (1988). Configurationality and the subset principle: The acquisition of *V* by Japanese learners of English. In J. Pankhurst, M. S. Smith, & O. van Buren (Eds.), *Learnability and second languages: A book of readings*. Dordrecht: Foris.

조우영

54896 전북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번지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강사

전화: (063) 270-3199

이메일: chowooyoungkr@hanmail.net

Received on February 1, 2022

Revised version received on March 23, 2022

Accepted on June 30, 2022